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1월 10일 금요일 (음 9월 22일) 제192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국가예산 확보 위해 정당별 대표 예방

송하진 도지사는 9일 국회를 방문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주요현안 및 사업을 설명하는 등 광폭행보를 펼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전기차용 리튬 제조시설, 새만금에 동지

새만금개발청은 10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주)리튬코리아와 전기차용 배터리용 리튬 국산화 제조 시설 건립에 관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오늘 리튬코리아와 3450억원 투자협약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연간 3000억원 수입대체 효과

후 기업 간 협의를 통해 호주 필리바미네랄즈(원료 공급), LG화학(수요 기업)이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주)리튬코리아는 내년 4월에 연 생산 능력 3만 톤(전기자동차 50만 대 분량) 규모의 제조 시설을 착공해 2020년 1월 준공한 후 가동에 들어가며, 생산된 제품은 LG화학 등 국내 이차전지 업체 등에 공급하게 된다. 4차산업의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

은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로 최근 각국의 전기차용 확대 정책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경우, 리튬을 전량 수입(2016년 2.5만 톤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 부족과 가격 폭등(2015년 6월 → 2017년 6월 기준 186.9% 상승)의 이중고를 겪어 왔다. 이 사업으로 국내에 리튬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수입 불안이 해소되면서 연간 약 3천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

와 함께 이차전지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전기차용차 산업의 성장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주)리튬코리아의 투자가 새만금 투자 활성화는 물론 국내 연관 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유망 신산업에 뛰어들어 기업의 도전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리튬 제조 시설 건립을 발판으로 이차전지와 전기차용차 분야의 연관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새만금의 주력 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30인미만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

내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내년부터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대다수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 해소하고 대상자인 소상공인이나 근로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발표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지원이 꼭 필요한 사회보험 미가입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한도를 90%까지 높이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경감해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 나갈

것"이라며 "지원 대상이 광범위하고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온라인 활용, 찾아가는 서비스 등 신청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했다"며 "대상 사업주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고용유지를 통한 우리 사회의 상생발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경제의 이중구조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는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을 통한 사람중심 경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출발점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올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됐다. /뉴시스

*토·일요일 신문 읽는다.

반복되는 학교폭력 대책은 '현실성 無'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첫날,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교육감의 태도변화와 교육계의 각성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최근 학교폭력으로 학생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지만, 학폭 대응 시스템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의원들은 위기학생 보호 등을 위한 wee센터 역할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부족 등을 지적하며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병서(부안2) 의원은 "지난 10월 도정질문에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 게시 문제를 지적했지만 여전히 부안과 무주, 김제교육청은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학생사건과 재발하는 학폭 문제에 대해 교육감의 진정성 대책을 꼼꼼하게 세울 것을 주문했다.

최영규(익산4) 의원도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만으로 학교폭력을 대응하고는 있지만, 교육자치 측면에서 자체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과 신고 기능을 강화하고, wee센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인정(군산3) 의원은 "학폭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 피해를 통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이라면서 "학교폭력 가해자는 습관으로 최초 가해자와 경험자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교화가 필요하고 집중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명식(고창2) 위원장은 "누리과정 갈등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받고, 도청에서 전담되지 못한 179억 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 위원장은 또한, "도내에서 학생자살과 교사자살 등 비극적인 사건이 자주 발생해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라면서 "학교폭력과 자살예방교육 등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양용모(전주8) 의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예산과 정책, 현장이 맞물려 돌아가야 하지만, 도교육청의 대응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학교폭력 징후와 관리, 그리고 치유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해숙(전주5) 의원은 "학교폭력의 원인과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부족하다"며 "성적 우선 사고를 벗어나, 인권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SNS 사용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대응 시스템 성과내지 못해 도교육청 원인 분석 부족 인권교육 강화 필요 재발방지 대책 꼼꼼히 세워야 wee센터 기능 강화도 요구

매일 INDEX
2면 - 만일사비 전북도 유형문화재에 3면 - 오늘 김관진 구속영장 심사

임실은 주야간 일조시간이 크고 일조시간이 타 지역보다 많으며 숙기의 온도가 높아
임실고추는 알싸하게 매우면서 달콤한 맛과 고운 빛깔을 띠고 있습니다.
세척부터 유통까지 임실고추종합가공센터의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시스템은 명품 임실고추를 생산합니다.
www.imsilin.kr

매콤하고 달콤한 감칠맛
임실 고추

임실고추종합가공센터 세척건고추 고춧가루